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연구



2024년 2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WU BOYUAN

교육학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원 효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WU BOYUAN

WU BOYUAN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2월 16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조 진 호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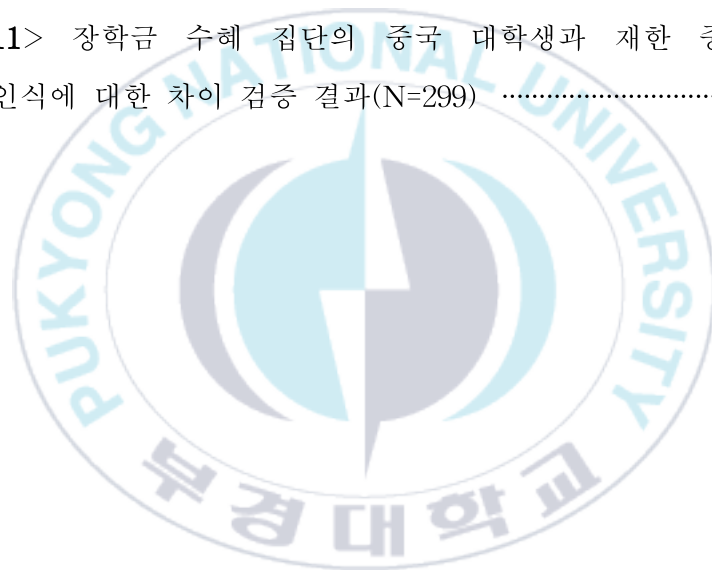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	6
나. 중국대학생	6
다. 스트레스	6
II. 이론적 배경	7
1. 재한 중국인 유학생 개념 및 현황	7
2. 대학 생활 스트레스의 개념	9
가. 중국 유학생 대학생활 스트레스	13
나. 중국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측정도구	23
3. 자료 분석 방법	25
IV. 연구 결과	26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26
2. 집단별 차이분석	27
가. 지역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27
나. 성별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28
다. 학위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31
라. 거주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33
마. 장학금 유, 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35
V.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및 결론	38
2. 연구 제한점과 시사점	40
<참고문헌>	42
<부록. 설문지>	48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III-2>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3
<표 IV-1> 변인 간의 상관관계	26
<표 IV-2> 지역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400)	28
<표 IV-3> 남성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30
<표 IV-4> 여성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30
<표 IV-5> 학부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62)	32
<표 IV-6> 석사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80)	32
<표 IV-7> 박사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58)	33
<표 IV-8> 기숙사에 거주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34
<표 IV-9> 자취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35
<표 IV-10> 장학금 미수혜 집단의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01)	36
<표 IV-11> 장학금 수혜 집단의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99)	37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tress in University Life between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WU BOYUAN

*Department of Education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Chinese international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Korea were selected, and from early October to mid-October 2023, the final 400 people were selected to find out about the stress of college life, and the collected data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stress difference betwee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Chinese students in Korea showed higher stress. In particular, among the sub-factors of stress, study, relationship, life, and career, the stress on future career was the highest.

Secon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ress between groups betwee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in terms of gend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udy, relationship, life, and career, which are sub-factors of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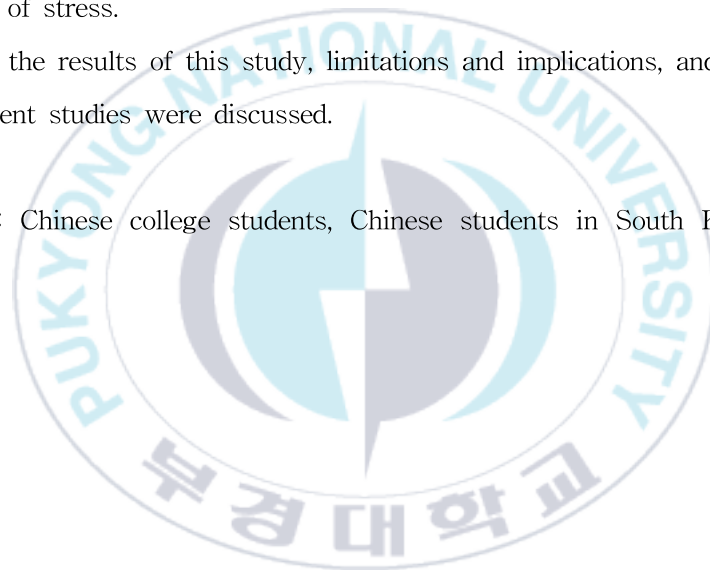
Third, in the learning stage,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ress betwee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udies, relationships, life, and careers, which are sub-factors of stress.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ress between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in terms of housing type and scholarship,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cademic, relationship, life, and career, which are sub-factors of s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Chinese college students,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stress, contras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따라 개인의 삶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시기는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자신을 탐색하는 역할을 하며, 졸업 후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다. 대학생들은 혼란스럽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반항하거나 저항적이기도 하며 환경과 신체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욕구와 극심한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박미향, 2013).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국제 교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Fu Lei, 2016).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협력과 교류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점점 더 많은 중국 학부모들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보내 유학생으로 교육받게 된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50만명 이상의 중국 대학생이 해외로 유학 갈 예정이다. 2004년 교육부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시행하면서 정부 정책 하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park, 2018).

COVID-19 영향으로 외국인 유학생(재학생 기준) 총수는 153,695명으로 전년(160,165명)보다 6,470명(4.0%) 감소했다. 전체 유학생(학위 및 비학위 과정 포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43.6% (67,030명)로 전년(44.4%, 71,067명)보다 0.8% 감소하여 지속적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기본통계, 2020). COVID-19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1년 152,281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늘었다.

2023년 중국에는 1,291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작년보다 98만명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중국 교육부, 2023). 한·중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등 양국관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교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발전을 달성했다(손교교, 2012).

이상으로 한·중 관계와 교류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는 중국 유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유학비용도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부 학생들에게는 유학 선택 1순위(hou et al., 2022)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유학생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Liu, Yi, 2021; Xu, 2017), 중국 유학생이 많이 늘었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모두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유학을 왔지만 학업과 인간관계, 대학생활 적응 등의 스트레스를 겪었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건강 상태인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업을 포기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보편적으로 능력 향상과 학위 완성을 방해하는 학습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인간관계, 문화차이 등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잘 융합되기 위해서는 국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와 개인의 안정적인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문화 적응 과정이고 다문화 교류에 따라 가치관, 태도,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응은 다른 적응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개인이나 단체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Williams, 1991).

유학생들이 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는 새로운 문화 차이로 인해 생활권에 쉽게 편입되지 않고 한국어도 사용할 수 없어서 언어적 불편함이 가장 힘들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 생활에 융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는 '한국어 소통'(권양이, 2008; 나임순, 2006; 이수범, 김동우, 2009; 한정희, 2008)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어려운 것은 학업에 대한 많은 정서적 부담과 압박감이며, 학업을 실천하는 것은 한국 유학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유학생은 스스로 삶의 목표를 개발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근원을 알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을 찾아 완화시켜야 한다.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렵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김태현 외, 2007; 김영경, 2009; 임춘희, 2009). 대다수 유학생들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과외 시간에도 같은 나라 친구들과 보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은 나라 친구를 찾기도 한다.

중국 유학생들은 소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비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생활비 부족이나 언어장애, 사회 적응 문제, 재정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의 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에 적응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유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상의 의사소통 장벽이 없지만, 최근 중국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 엄청난 신체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은 전체 취업군의 거대한 취업 주체이고 국가의 중요한 인재 자원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의 요구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모집 규모를 확대했고, 졸업생 수는 점차 증가하여 중국 현대 대학생의 취업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해마다 졸업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생은 점점 더 심각한 고용 상황에 직면하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고용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WANG WANYING, 2023).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은 점차 대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업과 미래 계획 문제는 또 대학생들에게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 문제는 대학생의 심리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대학생 심리건강 상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50.44%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계획할 학생의 불안 위험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훨씬 높다고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

법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중국 대학생들에게 출국 후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이해시켜 대학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문제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는 고등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대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교육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학위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주거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재한 중국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 생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

재한 중국인 유학생(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은 중국 국적을 갖고 현재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이다(YAO LAN, 2017).

나. 중국대학생

중국 대학생 (Chinese college students) 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현재 재학 중인 전일제 학생을 말한다.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는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사건과 환경 자극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사실상 스트레스 원을 가리킨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일종의 주관적인 반응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긴장하거나 일깨우는 일종의 내부 심리상태이며, 인체 내부에 나타나는 해석적, 감정적, 방어적 대응 과정이다(바이두 백과, 2023).

II. 이론적 배경

1. 재한 중국인 유학생 개념 및 현황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주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타국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학생을 말한다. 즉, 유학생들은 외국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학부, 석사, 박사 학위 과정 등 학업 목표를 달성한 후 귀국을 전제로 하는 집단을 지칭한다(최정, 2016; 정지숙, 2013). 또한, 한국어 능력을 연수 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학원이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있는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다(교육부, 2023).

최근 몇 년 동안 유학생의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학생이 차지하는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유학생에 대한 정의도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정지숙(2013)은 학술교류나 문화 전파 목적 외에 국가 간의 친선을 위해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유학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유학생의 개념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의하였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출입국관리법(2021)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국내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인 학생을 지칭한다. 교육부(2022)는 유학생에 대해 한국어 연수나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학교나 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보고 있다.

XIU XIAOHAN(2023)의 연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의된 개념에 따라 재한 중국인 유학생(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의 개념을 정의

하였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란 한국의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교육을 받은 중국 국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정의하였다.

2023년 교육부에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따르면 2022년에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2004년 1만 6,832명을 비교해보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추세로 보이면서 2020년과 2021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가 확산하면서 어학 교육생 수가 급감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 예정이었던 유학생들은 COVID-19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해 휴학하거나 졸업을 연기되기도 하였다(FU XINYAO, 2021). 2022년 재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4,611명(9.6%)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4,803명으로 전년 대비 4% 상승하였고, 비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42,089명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하였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은 67,439명(40.4%)으로 전년 대비 91명(0.1%)을 증가하여 그 뒤로는 베트남 37,940명(22.7%), 우즈베키스탄 8,608명(5.2%), 몽골 7,348명(4.4%), 일본 5,733명 3.4%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수는 60,521(48.5%)로 전년 대비 747명(1.2%)으로 증가하였고, 그 뒤로는 베트남 26,915(21.6%), 우즈베키스탄 8,249명(6.6%), 몽골 4,800명(3.8%), 일본 2,430명(1.9%) 순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대학 생활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유해한 정신적·육체적 자극을 가해졌을 때 그 생물이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 'Strictus' 또는 'Stringere'로서 '팽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5세기에는 스트레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7세기에는 어려움, 딜레마, 역경 등으로 사용되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신장애의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의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강경훈, 2010).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Selve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반응이라 정의하였다(현성용, 2011). 반면 Lazarus(1993)는 스트레스를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느끼는 위협과 불안의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이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생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생활에서 외부 또는 내부 요구 사항이 개인의 적응자원을 초과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협하는 환경적 자극 조건이며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및 생리적 체계를 변화시키며 스트레스도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혜림, 1986). 김동조(2003)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혐오나 위협적인 상황을 지각해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김홍규(1990)는 스트레스를 위협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서 겪는 압력, 좌절, 갈등 및 불안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라는 전제하에 개인 특유의 반응을 일으키는 행위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개인을 위협하는 외부 자극에 의해 개인이 정서·행동·신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이러

한 변화의 의미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용수, 박현주(2008)는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내·외적 요구가 생길 때 그 요구와 대응 능력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유발된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조정과 부조화, 적응과 부조화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적응 한계를 벗어난 내재적 자극을 인식하고 이에 스스로 반응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미숙, 2011). 따라서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내외적 요구가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초과할 때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여 부적응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긴장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긴장 상태에 대한 지각과 자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을 포함한다(김용수, 박현주, 2008).

이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며 적절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파괴하고 질병을 유발하며 많은 질병과 상호 관련이 있음이 여러 확인되었다(김선희, 1994). 이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 생산성, 창조성, 안녕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Smith, 1992).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매우 지시적이고 보호적인 환경에서 대학 입시경쟁과 학과공부에 전념하다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빠르게 노출되어 건강과 건강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잠재적인 건강문제의 위험이 있다(한금선, 김금면, 2007). 또한, 취업을 우려해 가중되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갑자기 늘어난 인간관계로 동창 간의 음주, 흡연 등이 빈번하고 아직 건강을 위협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거의 하지 않고, 이에 인하여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증상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받는 주요 스트레스는 진로문제, 미래문제, 대인관계, 가족 문제, 경제문제, 학습문제, 자기 문제 등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에 반응하여 소화 장애, 두통, 공상,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 장애와 자신감 상실, 의욕 상실과 대인관계 부조화 및 가족관계 불편함을 초래하며 전체 대학생의 약 10~15%는 각종 정신 질환인 심기증, 편견증, 경조증, 정신분열증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선일선, 1982).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유전적 요인, 성격, 자아개념, 스트레스 등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종교,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주장하였다.

‘2010년 사회조사 결과표’에 발표된 내용 중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생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익, 오창택(1998)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관련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11가지 요인을 알아냈다. 즉 성격, 경제, 대인관계, 학교생활, 친구 관계, 가정환경, 미래 진로, 학업, 이성 관계와 대학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거리감 및 신념적 요인이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성격적 요인은 대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및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친구 관계, 가정환경도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경험 정도를 연구하는 박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은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전영자와 김세진(1999)의 연구에서 학업 문제와 장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점에 대한 부담감, 취업 대란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통계청 연구에 따르

면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생활의 스트레스를 71.1%로 높았고, 이 중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경제 및 장래 문제로 67%에 달했고, 그 중에 7%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상태로, Chon, Kim, Yi(2000)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성취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즉 이성, 교수, 친구, 가족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 대인관계 차원의 스트레스로, 학업, 경제, 미래, 가치관 등의 문제를 성취 차원의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외국(Dusselier, Dunn, Wang, 2005)등의 연구에서는 기숙사 시설 환경, 전반적인 건강상태(질병 등), 대인관계(가족, 룸메이트, 기숙사 직원, 교수, 의미 있는 타인 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경제, 학업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은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든, 집을 떠나든 대학생활을 하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많은 이전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민소영, 2019).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년)은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스트레스를 8가지 요인(학업, 경제, 미래, 가치관, 이성, 친구, 가족 및 교수)으로 제시하였다.

이춘희(2007), 김연수, 유상희(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남학생보다 높았고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으로서는 진로와 학업 고민, 대인관계 전반의 갈등, 취업, 경제문제, 건강문제 등이 나타났다. 김진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취업 문제, 미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김혜경

(2015)의 연구에서 가치관, 학업, 경제문제, 장래 순으로 당면 과제 분야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여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조이슬, 2018).

가. 중국 유학생 대학생활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어려움이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대인 및 학업 문제 등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적응 상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 생활 적응 문제, 지역사회 적응 문제, 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적응 척도 개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문제, 문화적응, 경제문제 등 한국 체류기간 동안 경험한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유학생은 그들의 교육 환경에서 학업 요구 억압, 언어장벽, 경제적 불안, 문화적 또는 가치적 갈등, 향수병,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WANG WANYING, 2023에서 재인용).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은 학생의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한국문화와 대학문화에 대한 부적응, 문화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일부 한국 학생과 교수의 언행으로 인한 어려움(김현상, 2012),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심리적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었다(백지숙, 2011).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유학생에 대한 국제 문턱의 낮아지면서 중국 대학생의 해외 유학 경로가 점점 다양화해지고 있으며, 어학연수 및 유학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급증하였다. 또한, 중국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중국 부모들은 중국 국내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의 종합적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 규모가 확대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LIANG LICHUN, 2013).

Lewthwaite와 Zhai(2002)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 학생들이 다른 모든 것은 하찮고 공부만이 고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줬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 부모들은 학문적 성취가 가족에게 영광을 가져 준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와 지나친 기대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가져다 주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교수들과의 자발적인 교류 부족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교수와의 교류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권장되지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받아온 중국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습관은 교수와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언어 교류의 부족은 교류를 더욱 꺼림칙하게 만든다(GU JINZE, 2012).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생활수준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있어 유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05; Kim, 2008).

언어 수준과 사회적 문화 차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학업 문제로 몸 상태가 악화되어 편집증, 불만, 우울 등의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Sam & Eide, 1991). 중국 유학생들은 외국의 새로운 교과체제와 수업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낯선 이국적인 문화생활에 적응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도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쉬리쥘, 2017).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학 생활 스트레스에서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학업 스트레스다. 언어능력 부족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발표가 많고 성적도 좋지 않아 결국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공 분야에 대한 본인의 선행예습 부족과 기초학습 부족 등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공 과정이 한국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나타났다(WANG WANYING, 2023).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의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의 이해도는 조사 대상자의 65.06%, 영어 강의 이해도는 조사 대상자의 52.10%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재준 외, 2011).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생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은 소통스트레스다. 허재준 외(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이 학업 적응에 주로 도움을 받은 대상은 중국인 출신 유학생이 46.1%, 한국인 교우 18.9%, 외국인 유학생 담당 직원 16.9%, 한국인 교수 14.5% 순이었고, 생활 적응에 주로 도움을 받은 대상은 중국인 유학생 63.8%, 한국인 교우 15.0%, 외국인 유학생 담당 직원 12.3%, 한국인 교수 3.8% 순으로 나타났다

다. 즉,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학업이나 생활 적응에 있어서 한국인인 교수, 유학생 담당직원, 교수보다는 같은 나라 출신의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을 하였다.

유학생들이 또 다른 하나 요인은 유학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경제다. 학교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학생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3.04점에 달했고,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조사 대상의 39.7%를 차지하였다(허재준, 2011).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중에 문화적응이 있었다. 허재준 외(2011)의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음식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2.88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미래진로에 대한 걱정이다. 한국 학생과 함께 진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외국인으로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기존 관련된 유학생 진로 연구결과를 보면, 하정희(2008)는 중국 유학생의 대학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이들이 겪는 미래 및 취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유학생들은 유학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하게 되며 가족으로부터의 유학이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취직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다. 허형원, 손은령(2011)의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낮은 진로 장애는 개인적 특성 부족, 대학의 진로지원 부족, 주변의 기대, 직업능력 부족, 직업준비도 저하로 보고하였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허형원, 2011).

이상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과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중국 대학생의 대학 생

활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중국 대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고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대학생들이 겪는 주요 일상 고민은 경제문제, 학습문제, 친구와 교사의 인간관계 문제, 정서적 문제, 성에 관한 문제 및 자아 정체성, 자존심 등의 문제를 기록하였다(田瀾, 2005).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樊富珉(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71.3%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크거나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는 진로문제/취업(80.7%), 학업문제(78.3%), 대인관계(53.8%), 연애문제(39.8%), 경제문제(3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진로/취업 문제와 학업 문제를 보여주는데, 이에 중국의 취업난과도 무관하지 않다.

田瀾(2005)의 연구에서도 가난한 대학생들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주요 스트레스가 경제적문제,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결과에서는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로 불안, 열등감, 우울증임을 보여주었다. 즉, 가난한 대학생들도 일반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반 대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林海, 余紅, 杜宁(2005)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사회적 지원을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가 학업과 취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인관계와 경제생활이 그 뒤를 잇고 있음을 밝혔다. 그중에

서도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

車文博, 張林(2003)은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개인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였고, 또 하나는 '사회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개인의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 가족 분위기와 경제 여건, 자신의 적응력, 자신의 신체 건강과 연애 관계, 자기 인식, 생활 속 좌절 등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대인관계, 구직, 외부 자극으로 인한 정서적 변동, 학업의 성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도와 크기별 순으로 보면 학업 스트레스, 학교 환경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구직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u 등(2022)의 조사에 따르면 COVID-19 기간 동안 중국 대학생의 24.44%가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스트레스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한 분야로서 학업 스트레스의 표현이며 수용자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국가, 문화, 인종 집단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Wong, Wong & Scott, 2006). 이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체험의 트렌드 차이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질병 관리는 개인, 사회, 기관 등 모든 수준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생물학적 피드백, 요가, 생활 기능 훈련, 정신 명상, 심리 치료 및 기타 기술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출처를 이해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결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개입 조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의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들도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학업 문제보다 진로와 취업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더 많이 커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재학 중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과 인터넷(네이버 폼)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출력된 설문지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3년 10월 초부터 10월 중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여 최종 400분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중국 대학생은 200명, 중국 유학생도 20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소재 지역, 성별, 학위유형, 주거유형, 장학금으로 일반적 특성은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재 지역은 중국에 있는 중국 대학생은 200명,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도 20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국 대학생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100명(50.5%)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남자와 여자도 각각 100명(50.5%)이었다. 중국 대학생 중 만20세~24세는 56(28.0%), 만25세~29세는 51명(25.5%), 만30세~30세 이상은 49명(24.5%), 20세 미만은 44명(22.0%)로 구성되었으며, 재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만20세~24세가 59명(29.5%), 20세 미만이 52명(26.0%), 만25세~29세가 47명(23.5%), 만30세~30세 이상이 42명(21.0%)로 구성하였다. 학위유형로는 중국 대학생 대상자 중 박사 과정이 83명(41.5%) 가장 많았으며, 석사 과정이 제일 적어 41명(20.5%)이었고, 학부 과정 대상자는 76(38.0%) 이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학부 과

정이 86명(43.0%) 으로 많았으며, 박사 과정이 75명(37.5%) 으로 많았으며, 석사 과정이 39명(19.5%)으로 적에 나타났고, 학부 과정이 77명(38.5%) 이었다. 전공으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모두 이공계열을 많이 하고 있고 각각 78명(39.0%)과 60명(33.0%)이 있었다. 주거유형으로는 중국 학생의 경우 117명(58.5%) 의 대상자는 주로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하여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자취방(107명, 58.5%)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라에 따라 학교 상황과 재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이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140명(70.0%)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장학금을 못 받는 대상자가 60명(30.0%) 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159명(79.5%) 대부분 재한 중국 유학생은 장학금이 있었고 없는 대상자는 41명(20.5%) 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일주일 동안 공부한 시간은 대부분 11~15시간에 있었다. 절반 이상 중국 대학생 131명(65.5%) 과 재한 중국 유학생 128명(64.0%)이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에도 마찬가지로 133명(66.5%) 중국 대학생과 124명(62.0%) 재한 중국 유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재 지역, 성별, 학위유형, 거주유형, 장학금은 중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중 국(N=200)	한 국(N=200)
		빈도(%)	빈도(%)
성별	남자	100(50.0%)	100(50.0%)
	여자	100(50.0%)	100(50.0%)
연령	20세 미만	44(22.0%)	52(26.0%)
	만20세~24세	56(28.0%)	59(29.5%)
	만25세~29세	51(25.5%)	47(23.5%)
	만30세~30세 이상	49(24.5%)	42(21.0%)
학위유형	학부	76(38.0%)	86(43.0%)
	석사	41(20.5%)	39(19.5%)
	박사	83(41.5%)	75(37.5%)
전공	인문사회계열	53(26.5%)	52(26.0%)
	자연과학계열	37(18.5%)	37(18.5%)
	이공계열	78(39.0%)	60(33.0%)
	예체능계	25(12.5%)	44(22.0%)
	기타	7(3.5%)	7(3.5%)
주거유형	기숙사	117(58.5%)	83(41.5%)
	자취	83(41.5%)	117(58.5%)
장학금 유무	없음	60(30.0%)	41(20.5%)
	있음	140(70.0%)	159(79.5%)
주당 혼자 공부시간	5시간	24(12.0%)	22(11.0%)
	6~10시간	46(23.0%)	42(21.0%)
	11~15시간	70(35.0%)	63(31.5%)
	16~20시간	38(19.0%)	53(26.5%)
	20 시간 이상	22(11.0%)	20(10.0%)
동아리 활동 경험	있음	131(65.5%)	128(64.0%)
	없음	69(34.5%)	72(36.0%)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133(66.5%)	124(62.0%)
	없음	67(33.5%)	76(38.0%)
합계		4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 조사이었다. 연구 척도는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에 대해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무압력’, ‘거의’, ‘중간’, ‘편중’, ‘매우 크다’로 구성되었으며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 따라 총 40개 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이 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소재 지역, 성별, 학위 유형, 주거유형, 장학금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번호	내용	Cronbach's α
학업	1	학습 내용의 양	0.728
	2	내용의 난이도	
	3	시험 준비 및 응시	
	4	성적에 대한 두려움	
	5	주변 사람들이 제 전공을 차별할까 봐 대한 걱정	
	6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	
	7	자신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	
	8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부족	
	9	교사의 평가	
	10	학교 교육의 질	
	11	선생님의 시험 내용 및 출제 방식	
	12	상위 학위 취득	
	13	외국어 공부	
	14	전공과목 수	
	15	숙제	
	16	학습 성적	

요인	번호	내용	Cronbach's α
관계	1	동창생 간의 경쟁	0.810
	2	인간관계	
	3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4	이성관계	
	5	부모의 바람	
	6	동창 간의 관계	
	7	동창들 간의 상향 비교	
	8	친구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9	진심어린 친구의 부재	
	10	동아리 관계	
	11	교사와 소통하다	
생활	1	여가 시간이 적다	0.876
	2	개인적인 습관의 스트레스	
	3	학교의 납입금	
	4	가정 경제 형편	
	5	사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들킴	
	6	거주 조건	
	7	외모	
	8	체형	
	9	아르바이트	
	10	일상 경비	
진로	1	취업 상황	0.753
	2	구직 면접	
	3	본 학과의 발전 전망	

측정 도구의 신뢰성(reliability)은 연구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뢰성 분석은 측정항목 분석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신뢰성에는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도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측정은 내부 일치성을 측정하며, Cronbach Alpha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 분석 방법을 통해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신뢰

성을 평가할 수 있다. 내적 일관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다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의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 것에 대한 측정을 말한다.

Cronbach's α 계수의 범위는 0-1인데, 절대적인 표준값이 없지만 높을수록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6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0.7이라면 수용할 만한 수준이며 0.8-0.9 이상이면 이 테스트 또는 설문지의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0.728-0.876로 모두 0.7 이상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어 요인으로 채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 측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단순 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무압력', 2점은 3점은 '거의', 4점은 '중간', '편중', 5점은 '매우 크다'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 중 응답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여 최종 400부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중국 대학생은 200명, 중국 유학생도 200명으로 선정하였고 응답자들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 변인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학업, 생활, 관계, 진로 등 구분하였고, 하위요인의 각 변인의 평균(M)을 살펴보면, 진로(M=3.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M=3.352), 관계(M=3.299), 학업(M=3.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IV-1>와 같다.

<표 IV-1> 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학업	생활	관계	진로
학업	1			
생활	0.53***	1		
관계	0.683***	0.841***	1	
진로	0.669***	0.649***	0.788***	1
M	3.103	3.352	3.299	3.389
SD	0.517	0.799	0.679	0.945
왜도	-0.164	0.392	0.343	-0.073
첨도	-0.687	-0.529	-0.617	-0.827

*** $p < .001$, ** $p < .01$, * $p < .05$

첫 번째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전체집단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생활, 관계 그리고 진로에 관한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각 집단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전체 집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2. 집단별 차이분석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대학생 및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가. 지역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지역에 따라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은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가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 소재지역에 따라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3.105$, $p<0.01$), 관계($t=9.262$, $p<0.01$), 생활($t=10.115$, $p<0.01$)과 진로($t=8.037$, $p<0.01$)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하위변인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업, 관계, 생활, 진로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보다 재한 중국 유학생이 학업, 관계, 생활, 그리고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2> 지역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400)

변인	중국 대학생(N=200)		재한 중국 유학생(N=200)		t	p
	M	SD	M	SD		
학업	3.023	0.536	3.182	0.485	T=3.105**	p=0.002
관계	3.013	0.482	3.584	0.726	T=9.262***	p=0.000
생활	2.991	0.565	3.713	0.836	T=10.115***	p=0.000
진로	3.037	0.867	3.742	0.887	T=8.037***	p=0.000

*** $p < .001$, ** $p < .01$

나. 성별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본 절부터는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표본의 하위집단인 성별, 학위유형, 주거유형, 장학금 유무에 따라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400명의 표본 중 남자와 여자를 모두 따로 골라내어 남자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남자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269$, $p>0.05$), 관계($t=-0.148$, $p>0.05$), 생활($t=-0.184$, $p>0.05$)과 진로($t=-0.099$,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854$, $p>0.05$), 관계($t=0.352$, $p>0.05$), 생활($t=0.446$, $p>0.05$)과 진로($t=-1.273$,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하위요인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 대하여 학생 성별 집단에 따른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별 집단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성별 집단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표 IV-4>와 같다.

<표 IV-3> 남성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변인	특성	남성(N=200)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152	0.537	T=0.269	p=0.788
	재한 중국 유학생	3.132	0.515		
관계	중국 대학생	3.327	0.689	T=-0.148	p=0.883
	재한 중국 유학생	3.341	0.65		
생활	중국 대학생	3.394	0.792	T=-0.184	p=0.854
	재한 중국 유학생	3.415	0.821		
진로	중국 대학생	3.407	0.998	T=-0.099	p=0.921
	재한 중국 유학생	3.42	0.895		

<표 IV-4> 여성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변인	특성	여성(N=200)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033	0.491	T=-0.854	p=0.394
	재한 중국 유학생	3.094	0.522		
관계	중국 대학생	3.262	0.652	T=0.352	p=0.725
	재한 중국 유학생	3.229	0.673		
생활	중국 대학생	3.325	0.789	T=0.446	p=0.656
	재한 중국 유학생	3.275	0.796		
진로	중국 대학생	3.28	0.944	T=-1.273	p=0.204
	재한 중국 유학생	3.45	0.944		

다. 학위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다음으로, 400명의 표본 중 학부, 석사 그리고 박사를 모두 따로 골라내어 각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부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37$, $p>0.05$), 관계($t=0.314$, $p>0.05$), 생활($t=0.186$, $p>0.05$)과 진로($t=1.176$,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1.775$, $p>0.05$), 관계($t=-0.486$, $p>0.05$), 생활($t=0.28$, $p>0.05$)과 진로($t=-0.157$,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박사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294$, $p>0.05$), 관계($t=0.927$, $p>0.05$), 생활($t=0.281$, $p>0.05$)과 진로($t=-0.171$, $p>0.05$)에 대한 인식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하위요인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 대하여 학생 학위유형 집단에 따른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위유형 집단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학위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 <표 IV-6>, <표 IV-7>와 같다.

<표 IV-5> 학부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62)

변인	특성	학부(N=162)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131	0.546	T=-0.37	p=0.712
	재한 중국 유학생	3.1	0.526		
관계	중국 대학생	3.268	0.712	T=0.314	p=0.754
	재한 중국 유학생	3.303	0.705		
생활	중국 대학생	3.33	0.79	T=0.186	p=0.852
	재한 중국 유학생	3.355	0.866		
진로	중국 대학생	3.303	1.042	T=1.176	p=0.241
	재한 중국 유학생	3.488	0.968		

<표 IV-6> 석사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80)

변인	특성	석사(N=80)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2.986	0.528	T=-1.775	p=0.080
	재한 중국 유학생	3.194	0.517		
관계	중국 대학생	3.178	0.651	T=-0.486	p=0.628
	재한 중국 유학생	3.249	0.65		
생활	중국 대학생	3.376	0.777	T=0.28	p=0.780
	재한 중국 유학생	3.328	0.735		
진로	중국 대학생	3.317	1.035	T=-0.157	p=0.876
	재한 중국 유학생	3.35	0.851		

<표 IV-7> 박사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58)

변인	특성	박사(N=158)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11	0.483	T=0.294	p=0.769
	재한 중국 유학생	3.087	0.51		
관계	중국 대학생	3.376	0.636	T=0.927	p=0.355
	재한 중국 유학생	3.283	0.626		
생활	중국 대학생	3.378	0.803	T=0.281	p=0.779
	재한 중국 유학생	3.343	0.79		
진로	중국 대학생	3.394	0.876	T=-0.171	p=0.864
	재한 중국 유학생	3.418	0.899		

라. 거주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400명의 표본 중 기숙사, 자취를 모두 따로 골라내어 각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생이 주거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숙사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49$, $p>0.05$), 관계($t=-0.534$, $p>0.05$), 생활($t=-0.017$, $p>0.05$)과 진로($t=-0.905$,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취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338$, $p>0.05$), 관계($t=0.73$, $p>0.05$), 생활($t=0.288$, $p>0.05$)과 진로($t=-0.476$,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스트레스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느끼는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에 관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 유의수준이 모두 $p>0.05$ 로 인해 t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거유형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 <표 IV-9>와 같다.

<표 IV-8> 기숙사에 거주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변인	특성	기숙사(N=200)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115	0.51	T=-0.49	p=0.625
	재한 중국 유학생	3.151	0.507		
관계	중국 대학생	3.266	0.675	T=-0.534	p=0.594
	재한 중국 유학생	3.316	0.614		
생활	중국 대학생	3.349	0.779	T=-0.017	p=0.987
	재한 중국 유학생	3.351	0.798		
진로	중국 대학생	3.336	0.983	T=-0.905	p=0.367
	재한 중국 유학생	3.458	0.868		

<표 IV-9> 자취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00)

변인	특성	자취(N=200)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061	0.528	T=-0.338	p=0.736
	재한 중국 유학생	3.087	0.526		
관계	중국 대학생	3.335	0.665	T=0.73	p=0.466
	재한 중국 유학생	3.263	0.697		
생활	중국 대학생	3.375	0.808	T=0.288	p=0.774
	재한 중국 유학생	3.341	0.821		
진로	중국 대학생	3.353	0.959	T=-0.476	p=0.634
	재한 중국 유학생	3.419	0.955		

마. 장학금 유, 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차이 검증

400명의 표본 중 장학금 유, 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장학금 유무가 스트레스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과를 보면 장학금이 없는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1.12$, $p>0.05$), 관계($t=-1.871$, $p>0.05$), 생활($t=-0.521$, $p>0.05$)과 진로($t=-1.331$,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

학금이 있는 집단 내에서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스트레스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t=-0.232, p>0.05$), 관계($t=-0.311, p>0.05$), 생활($t=-1.057, p>0.05$)과 진로($t=0.194, p>0.05$)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장학금이 없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의 스트레스 분석 유의확률이 모두 >0.05 때문에 t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장학금 있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의 스트레스 분석 유의확률이 모두 >0.05 로 t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유의수준이 모두 >0.05 로 t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학금 유, 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 <표 IV-11>과 같다.

<표 IV-10> 장학금 미수혜 집단의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101$)

변인	특성	장학금 무($N=101$)			
		M	SD	t	p
학업	중국 대학생	3.05	0.577	$T=-1.12$	$p=0.265$
	재한 중국 유학생	3.175	0.514		
생활	중국 대학생	3.348	0.764	$T=-0.521$	$p=0.604$
	재한 중국 유학생	3.427	0.713		
관계	중국 대학생	3.361	1.056	$T=-1.871$	$p=0.064$
	재한 중국 유학생	3.74	0.908		
진로	중국 대학생	3.288	0.904	$T=-1.331$	$p=0.186$
	재한 중국 유학생	3.532	0.9		

<표 IV-11> 장학금 수혜 집단의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N=299)

변인	장학금 유(N=299)			
	M	SD	t	p
학업	3.111	0.49	T=-0.232	p=0.816
	3.097	0.519		
생활	3.39	0.736	T=-1.057	p=0.291
	3.297	0.781		
관계	3.271	0.627	T=-0.311	p=0.756
	3.248	0.646		
진로	3.336	0.936	T=0.194	p=0.846
	3.336	0.936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생활 적응, 자신에 대한 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 진로 문제, 사회적 가치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학생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정신건강,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일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사회제도, 경제상태, 정치제도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 감지와 대처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빈도와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학생이 보편화 되는 오늘날,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중국 대학생 및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학업, 생활, 관계, 진로 등으로 구분하여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은 평균 3.014(SD=0.464)점, 재한 중국 유학생이 평균 3.467(SD=0.603)점으로 재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 < 0.01$). 이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중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쉬리권, 2017) 결과와 일치한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보다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 관련 문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미래 진로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5점 Likert 척도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전체 스트레스와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보다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 관련 문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미래진로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귀야오(2016)가 재한 중국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중국 대학생이나 한국 대학생보다 재한 중국 유학생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정희(2008)는 중국 유학생의 대학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이들이 겪는 미래 및 취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에 따라 유학생들은 유학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하게 되며 가족으로부터의 유학이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취직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허형원, 손은령(2011)의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낮은 진로 장애는 개인적 특성 부족, 대학의 진로지원 부족, 주변의 기대, 직업능력 부족, 직업준비도 저하로 보고하였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허형원, 2011).

쉬리권(2017)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친구 관계, 학업문제, 경제문제, 가치관 문제에서 중국 대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귀야오(2016)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생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국 유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타국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대학생들보다 당면한 과제와 대인관계 문제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의 대인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서도 자국 대학생들보다 경제적 문제, 학업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성별(남/여), 학위유형(학부/석사/박사), 주거유형(기숙사/자취), 장학금 유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업, 관계, 생활과 진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느끼고 있지만 성별, 학위유형, 주거유형, 장학금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가 성별, 학위유형, 주거유형, 장학금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국가에 떠나서 타국에 생활이나 공부에서 이어진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활에 스트레스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 모두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와 같은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귀야오, 2016). 특히 적극적 대처는 학업, 인간관계, 생활 그리고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

2. 연구 제한점과 시사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모집팀으로

단일대학을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유학생에게 보편화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만 하였고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하지 않아 대학생 스트레스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으며, 재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약간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과, 두 집단이 동일하게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소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성별, 학위유형, 주거유형, 장학금 유무에 따른 중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중국학생의 경우 표집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중국 유학생과의 비교하는 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방법이 설문조사할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에 인터뷰 추가 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도출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경훈(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윤희, 안선희(2015). CIpp 평가모형에 근거한 2014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평가: 중학교 진로교육과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4), 195-232.
- 교육부(2023). 2022년 교육기술통계 주요 내용.
- 귀야오(2016). 중국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양이(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 연구, 14(1), 310-333.
- 김동주(2003). 신학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유상희(2013). 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치기공과치위생과 대학생 중심으로, 대학치과기공학회지,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2009).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김용수, 박현주(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분석, 아동교육, 17, 63-76.
- 김선희(1994). 스트레스와 질병, 면역, 그리고 영양간의 관계. 식품영양연구소, Vol.- No.5, 3-12.
- 김세진(199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김진희(2011). 대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자기 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
- 김태현, 김아영, 강이화(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현상(2012). 국내대학의 국제화 교육 실태 분석: 국내 대학의 쌍방향 국제화 환경 분석, 교양교육연구, 6(1), 211-240.
- 김홍규(1990). 한국의 사회계층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임순(2006).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민소영(2019).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5), 491-501
- 박미향(2013). 인지적 소집단 미술치료가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2002).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 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9.3, 119-131.
- 손교교(2012).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해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쉬리권(2017).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일선(1982). 유산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양의학 42(5), 361-369.
- 이미숙(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범,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스티치와 커뮤니케이션, 11, 47-79.
- 이춘희(2007).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익, 오창택(1998).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학생

- 생활연구, 3, 95-118.
- 이현주, 김혜경(2015),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
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전점구, 김교현, 이준석(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연
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영자, 김세진(1999). 대학생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
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3, 157-178.
- 정지숙(201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심리사회적, REBT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이슬(2018). 남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
망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통제소재와 지각된 차별감이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림(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출입국관리법(2021).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지, 20(2), 437-496.
- 한국법무부(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한금선, 김금면(2007). 간호대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의 자존감, 건강증진
행위, 가족 적응도 및 스트레스 증상 비교, 한국정신간호학회, 16(1),
78-84.
- 허재준, 김세움, 노용진, 오계택, Randall, W. Green, 서환주(2011).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허형원, 손은령(2011). 재학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1), 51-66.
- 현성용(2011). 공역, 현대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CHEN XIN(202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적응조력을 위한 상담모형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on KK, Kim KH and Lee JS(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FU LEI(2016). 중국유학생의 학습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24(2), 355-378.
- FU XINYAO(2021).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과정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u CY, Heo G and Won HH(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72(9), 53-68.
- Jang, H. X.(200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ultural accommodation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 K, Chon, K. H. Kim and J. S. Yi(2000). 대학생의 수정된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건강심리학회지, Vol.5, No.2, 316-335.
- Kim, C. D.(2008).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of the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 Dusselier, B. Dunn, Y. Wang, M. C. II. Shelley, D. F. Whalen(2005). personal, health, academic, and environmental predictors of stress for residence hall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4(1), 15-24.

- Lazarus, R. S.(1993). Why we should think of stress as a subset of emotion. In L. Goldberger & S. Bren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 Free press.
- Lewthwaite, M, A(2002).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19, 167-185.
- Liu JY and YI YJ(2021). The Effects of Customized Multilingual Services of Academic Libraries on the User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1-18.
- Liu, F., Dai, L., Cai, Y., Chen, X., Li, J., & Shi, L.(2022). psychological state and its correlates of local college students in Wuhan during COVID-psychology in the Schools.
- Park SY(2018).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Counseling & Research, 1(2), 13-28.
- Sam, D. L., & Eide, R.(1991).Survey of mental health of foreign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2, 20-30.
- Smith TW(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11(3), 139-150.
- YAO LAN(2017). 중국유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ANG WANYING(2023).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및 상담서비스 인식 조사: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illiams, C. L., & Berry, J. W.(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641
- Wong, p. T. Wong, L. C. & Scott, C.(2006). Beyond stress and coping: The positive psychology of transformation.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1-26.
- XIU XIAOHAN(2023). 제한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한부모진로행동과 미래 시간전망이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미치는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Xu RJ(2017). A Study on the Stress, Depress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Zhai, L.(2002). Studying InternationalStudents:AdjustmentIssuesand Social Support.
- 古晋澤(2012). 中國留美學生的心理壓力及其成因.尼蘇達大學杜魯斯校區.美國明尼蘇達州杜魯斯.
- 林梅,余紅,杜宁(2005). 大學生壓力感与焦慮及抑郁和社會支持的關係[J].中國臨床康復,(24).
- 梁莉春(2012). 北美中國留學生學習壓力及應對策略的研究－以加拿大中國留學生爲例, 教育學碩士學位.
- 樊富珉, 李偉(2000). 大學生心理壓力及應對方式在清華大學的調查[J].青年研究, 6, 40-45.
- 車文博, 張林(2003). 大學生心理壓力感基本特点的調查研究, 應用心理學第3期, 3-9頁
- 王書會(2023). 淺析大學生就業壓力及其影響因素, 鄭州大學教育學院, 教育進展, 13(3): 1269-1275.
- 田瀾, 林梅, 余紅, 杜宁(2005). 大學生壓力感与焦慮及抑郁和社會支持的關係, 中國臨床康復, 9(24): 80-81.
- 바이두 백과(2023), 스트레스 사전적 정의, 중국 바이두 백과. 검색날짜: 2023. 11.15:https://baike.baidu.com/item/%E5%8E%8B%E5%8A%9B/5798546?fr=ge_al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
컨설팅과정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조사는 재한 중국 유학생 및 중국 대학생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
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하나는 앞으로 중국 유학생이
나 중국대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
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 연구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您好！

非常感謝您抽出寶貴的時間參與本次問卷調查。

本調查問卷是爲了調查中國留學生和中國大學生之間大學生活壓力的差異而進
行的研究中重要的一部分，請按照平時自己的想法或感覺如實作答。您的每一個
回答都將成爲寶貴資料，希望您可以認真填寫。

本問卷實行完全匿名制，您的所有個人信息都會得到保密，且保證不用於研究
以外的一切用途。

真心感謝您的幫助！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석사과정 WU BOYUAN(w1131835651@gmail.com)

지도교수 원효헌

제 1 부분

다음 문항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고 귀하와 맞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關於下面的問題根据自己的實際情況做出相應選擇.

1. 귀하의 성별은? 您的性別是?

① 남자 男 ② 여자 女

2. 귀하의 연령은? 您的年齡是?

① 20세 미만 未滿20歲 ② 만20세~24세 20-24歲 ③ 만25세~29세 25-29歲
④ 만30세~30세 이상 滿30-30歲以上

3. 어디에서 대학을 다니나요? 在哪上大學

① 중국 中國 ② 한국 韓國

4. 귀하의 학위유형은 무엇입니까? 您目前所處的學習階段是?

① 학부 學士 ② 석사 碩士 ③ 박사 博士

5.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您的專業是什麼?

① 인문사회계열 人文社會學科 ② 자연과학계열 自然科學學科 ③ 이공계열 理工學科 ④ 예체능계 藝術類學科 ⑤ 기타 其他

6. 귀하의 주거행태가 어떻게 됩니까? 您目前住在什麼地方?

① 기숙사 學校宿舍 ② 자취 自炊

7. 귀하의 장학금이 어떻게 됩니까? 您有獎學金嗎?(其他獎學金請按照學費比列核算后選擇)

① 없음 无獎學金 ② 등록금 전액의 30% 學費全額的30%減免 ③ 등록금 전액의 50% 學費全額的50%減免 ④ 등록금 전액 全額獎學金

8. 귀하의 주당 혼자 공부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您一周獨自學習的時間是

① 5시간 5小時② 6~10시간 6-10小時 ③ 11~15시간 11-15小時 ④ 16~20시간 16-20小時⑤ 20 시간 이상 20小時以上

9.귀하는 동아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您有參加社團活動的經歷嗎?

① 있음 有 ② 없음 沒有

10. 귀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您有打工的經歷嗎?

① 있음 有 ② 없음 沒有

제 2 부분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귀하가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關於下面的問題根據自己最好的感覺做出相應選擇.

1學習內容的量 학습 내용의 양

①无壓力 무압력 ②很輕 거의 ③中等 중간 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學習內容的難度 학습 내용의 난이도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準備及參加考試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4同學之間的競爭동창생 간의 경쟁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5考試成績的公布시험 성적의 공포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6其他人對自己專業的態度 주변 사람들이 제 전공을 차별할까 봐 대한 걱정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7學習的時間長공부하는 시간이 길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8空閑時間少여가 시간이 적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9自己對知識的接受能力자신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0人際關係인간관계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1就業情况취업 상황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2家庭成員的健康狀況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3个人習慣的壓力개인적인 습관의 스트레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4對學習情況缺乏及時反饋학습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5教師的評價교사의 평가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6學校的教學質量학교 교육의 질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7老師的考試內容及出題方式선생님의 시험 내용 및 출제 방식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8對異性表白遭拒絕或被異性追求이성에게 고백하는 것이 거절당하거나 이성에게 구애를 받는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19繼續讀研究生或博士生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계속 밟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0學校的收費학교의 납입금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1家庭經濟狀況가정 경제 형편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2父母的期望부모의 바람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3同學之間的關係동창 간의 관계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4求職面試구직 면접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5同學間的攀比동창들 간의 상향 비교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6隱私被別人發現사적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7本專業的發展前景본 학과의 발전 전망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8和同學有效溝通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29學習外語외국어를 공부하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0居住條件거주 조건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1外貌외모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2体型체형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3沒有眞心的朋友진심어린 친구가 없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4專業課數量전공과목 수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5課后作業숙제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6社團關係동아리 관계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7打工아르바이트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8和教師溝通교사와 소통하다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39日常花銷일상 경비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

40學習成績학습 성적

①无壓力 무압력②很輕 거의③中等 중간④偏重 편중⑤壓力极大 매우 크다